

##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25)

### 1. 지소미아 협정의 중국 중재 관련

#### □ [일본 언론 동향]<sup>1)</sup>

-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8월 중순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재의 타진을 청와대에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알려왔다고 보도
- 또한 아사히신문은 청와대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동맹국인 미국 앞에서 중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한국 정부가 이 중재 타진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음.

### 2. 한일 관계 악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일본 재계 반응 관련

#### □ [일본 재계 동향]<sup>2)</sup>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계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분위기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
- o 한일 경제인 회의에 참가한 일본 측 관계자들은 이번 불매운동이 과거의 것과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실제로 일본산 맥주는 수입산 맥주의 한국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는데, 8월에는 13위까지 하락하였으며, 8월 한국에서 일본산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동월대비 약 57% 감소
- 한편 이번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SNS에서 정보를 교환한 젊은층과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노조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관제(官製)불매

1) 「日韓対立、関与狙った米中 中国が仲裁を打診、韓国辞退 米、GSOMIA破棄翻意促す」 『朝日新聞』 (2019. 9. 25).

2) 「対韓経済界の懸念根深く 人材面強化・投資に影」 『産経新聞』 (2019. 9. 25).

운동' 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

- 또한 한일 양국 경제계가 진행해 온 인적 교류, 일본의 대한국 투자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평가(産経新聞)
- o 2018년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는 '국내 일손 부족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대졸 취업난 문제를 지닌 한국이 협력할 수 있다' 라고 한일 민·관의 인식이 일치함.
- o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이었던 취업 박람회를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일본계 기업의 채용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
- o 또한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신고기준)는 2012년에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약 13억 달러에 머물렀음. 2019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약 38.5% 감소함.
- \* 일본의 대한 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등 생산거점을 이전함에 따라 투자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3. 한일 경제인 회의 관련

#### □ [동향]

-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양국 경제계는 협력과 연대를 지속하기로 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에 대해 관계 개선을 위한 양보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sup>3)</sup>
- o 양국 경제계 대표는 “지금까지의 경제 협력이 끊어져서는 안 되며, 양국의 가교로서 경제계는 미래 지향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면서 인프라 개발 등의 협력과 고용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계속할 결의를 다짐.

3) 「日韓經濟人会議 “两国政府は歩み寄りを”」 『NHK NEWS WEB』 (2019. 9. 25).

- 또한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양국 정부가 대화하여 새로운 관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라는 메시지가 담김.

#### 4. 한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

##### □ [동향]<sup>4)</sup>

- 일본 외무성은 27일(일본시간) 모테기(茂木) 외무성 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발표
-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수출규제, 지소미아 유지 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는 점과, 한국 소재 전범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출규제 조치는 안전보장상 조치로서 정당성을 알릴 것으로 보이며, 지소미아의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언론들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두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외교 당국자간의 의사소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5.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실패 관련

##### □ [일본 정부 동향]<sup>5)</sup>

- 스가(菅)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궤도를 탐지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 “레이더 탐지 등 자위대의 정보수집 수단에 대해

4) 「日韓外相、米で26日会談」 『日本経済新聞』(2019. 9. 25). 및 「徴用工など議論、米で日韓外相会談へ」 『産経新聞』(2019. 9. 25). 및 「日韓：日韓外相会談へ 徴用工など協議 27日に米で」 『毎日新聞』(2019. 9. 25).

5) 「菅氏、ミサイル探知巡る説明回避」 『静岡新聞』(2019. 9. 25).

서는 기밀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 며 설명을 회피

-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 “일본의 독자적 정보수집에 더해 미국과의 정보 협력으로 대응 태세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 강조

#### 5. 국토교통성 장관의 한국과의 회담 의향 관련

##### □ [일본 정부 동향]<sup>6)</sup>

- 일본 아카바(赤羽) 국토교통성 장관은 10월 25,26일 홋카이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관광장관 회의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양자간 회담을 실시할 의향을 표명

---

6) 「国交相、韓国と会合意向」 『産経新聞』(2019. 9. 25).